"대통령 취임식, 당선인 의중 고려 준비"

행자부, "여러 시나리오 검토"… 규모 대폭 축소 · 생략 관측 우세

19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행정자치부는 취임식과 관련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준비를 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안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 의정관 등 의정담당관실에서 즉시 당선인과 캠프를 접촉해 당선인의 의중을 듣고 취임식을 준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식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등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통령 취임식은 2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 광장서 열렸다.

취임식은 통상 두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당선인 취임식 준비위원회와 함께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취임식은 과거와 달리 당선 확정 직후 이뤄진다. 당선일이 곧 취임일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외빈 초청과 무대설치 등 행사를 준비할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취임식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생략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0일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각 후보 측도 취임식에 힘을 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 측은 국회에서 간단한 취임선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선서 이후 청와대에 가서 바로 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취임식을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자부는 취임식은 당선인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취임 선서만 먼저하고 하루 이틀내에 취임식을 여는 방안, 선서와 취임식을 당일 약식으로 하는 방안, 선서만 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9일 밤이나 10일 새벽에 당선인이 확정되면 취임식 시기와 장소, 규모 등을 조율한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佛 대선 결선, 중도 마크롱 당선

중도신당 앙 마르슈('전진'이라는 뜻)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출구조사에서 예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지난 1965년 이후 프랑스 대선에서 언론사들의 출구조사 결과가 최종 집계와 다르게 나온 적이 없었던 만큼 마크롱 후보가 제25대 프랑스 대통령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마크롱 후보는 프랑스 정치사에서 첫 최연소 대통령에 첫 비(非) 주류 정당 출신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여론조사업체인 Ispos/Sopra Steria와 프랑스 국영 TV 및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의 출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날 결선투표에서 마크롱 후보가 65.1%를 확보한 반면, 극우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는 35.9%에 불과했다.

마크롱 후보는 첫 성명에서 "오늘 저녁은 우리 긴 역사의 새 페이지"라면서 "나는 그것이 희망과 자신감의 재발견이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7일(현지시간) 프랑스 대선 결선에서 승리한 에마뉘엘 마크롱 전 경제장관이 파리에서 당선 축하 행사를 열고 있다.

지상파 3사, 대선 개표 방송 "CG신기술로 시청률 승부"

당선자 윤곽 새벽 1시께 재미 더해 시청자 잡아둬

국민의 눈과 귀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집중된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선거방송 중계 준비를 마쳤다. 이번 대선 출구조사는 3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만큼 차별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방송사는 각종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신기술로 시청자를 사로잡는 데 중점을 둔다.

◇승부는 컴퓨터 그래픽

지난 대선 시청률 1위에 오른 KBS는 '스파이더 캠'을 띄운다. 스파이더 캠은 주로 스포츠 경기 등 역동적인 상황을 중계한는 데 활용하는 장비다. KBS는 광화문 광장을 스파이더 캠에 담고, 이 영상에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을 더해 시청자가 광화문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는 경험을 전달한다.

SBS는 2012년 대선 때 선보인 그래픽 표출 시스템 '바이폰'(VIPON:Vote Information Processing Online Network)을 이번에도 활용한다. 바이폰은 각종 개표 관련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보여주는 방식이다. 대선 후보자의 얼굴에 각종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더한 다양한 그래픽도 준비한다. SBS는 또 페이스북과 제휴해 페이스북 이용자를 연령·지역·성별에 따라 분류, 이들이 대선에 대해 가진 생각을 빅데이터화해 공개한다.

MBC는 MR(Mixed Reality 혼합현실)을 내세운다. 가상공간을 활용한 VR과 달리 MR은 스튜디오 안에서 이뤄진다. MR은 AR보다 현실감이 높아 후보자가 직접 모니터 밖으로 걸어 나오는 듯한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MBC는 또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타워 외벽에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띄운다. 지난해 미국 대선 때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 후보들의 득표율이 게시됐던 것에서 착안했다.

◇지루할 수 있는 개표, 더 재밌게

당선자 윤곽은 다음 날 새벽 1시께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사들은 투표 종료 후 7시간 가까이 시청자를 잡아두기 위해 선거 방송에 재미를 더한다.

KBS는 모든 연령층 시청자가 편안하게 개표를 즐길 수 있게 '전국노래자랑' 진행자 코미언 송해를 내세운다. 실시간 개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국노래자랑' 콘셉트의 그래픽을 선보이고, 이를 송해가 특유의 진행 방식으로 설명한다.

SBS는 '선거는 축제' 설정 아래 광화문 광장과 서울 목동 스튜디오를 이원 연결한다. 오후 4시부터 '정봉주와 광장 토크쇼'를, 오후 7시20분부터는 양희은 콘서트 '꽃길'을 열어 시민들과 이야기 나눈다.

MBC는 코미디언 서경석을 '선택 2017'의 공동 진행자로 선정했다. 박재훈·박연경 아나운서가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한다면, 서경석은 시청자 편에서 쉽고 재밌는 개표를 이끈다. /뉴시스

홍준표 '장인 영감탱이' 발언 논란

온라인상 '패륜' vs '친근' 갑론을박

5.9 촛불대선이 하루 앞둔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영감탱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홍 후보가 지난 4일 유세에서 장인과의 불편했던 관계를 이야기하던 중 "내가 집에 못 오게 했어요. 장모만 오소. 용돈도 검사할 때 장모님한테 주면서 이 영감탱이와 갈라서 쓰면 내 절대 앞으로 한 푼도 안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26년간 그렇게 했어요"라고 밝혔다.

홍 후보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패륜'이다 '친근'이라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홍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상도에서는 장인어른을 친근하게 표시하는 속어로 '영감쟁이,영감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패륜이라고 저를 비난하는 민주당의 작태가 참 한심합니다. 영남을 싸잡아 패륜집단이라고 매도해놓고 역풍이 거세게 불자 이를 호도하기 위해 꾼들을 동원해 홍준표장인을 검색케 해서 검색어 1위에 올려준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나 번지수가 틀렸습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영감탱이'를 친근하게 표시하는 속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표준어국어대사전'과 국립국어원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말샘'에서는 '영감탱이'를 '나이 든 남편이나 늙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슷한 말로는 영감쟁이, 영감태기가 있다.

이로써 낮잡아 이르는 말과 친근한 표현을 같은 선상에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안재용 기자

민주당 군산선대위, 문재인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군산선거대책위원회는 이른 아침 극동주유소 사거리에서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군산 곳곳을 누비며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유세를 벌였다.

문재인 후보는 전북지역 대선공약 7개중 군산관련해서 '청와대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신설', '군산조선소 정상화 추진', '새만금에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스마트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며 "군산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군산관련 공약이 새만금 soc 조기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며, 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 존치약속을 대선공약에도 넣지 않고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책임 있는 답변도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제 "누가 진정으로 전북발전과 군산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후보인지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강조했다.

국회의원 의석수 30여석 밖에 되지 않는 불안한 안철수 후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인 홍준표 후보를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또 "적극적이고 압도적인 지지가 개혁의 동력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힘이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군산발전을 위해 시민의 힘을 보여 달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공식적으로 마지막 유세를 펼친 남북로사거리 퇴근인사에서는 선거대책위원들을 포함해 지지자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군산=장 현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288-9700